

水调歌头 / 苏轼 소식
shuǐdiàogētóu / sūshì

明月几时有 ,
Míng yuè jǐshí yǒu,
밝은 달은 언제부터 저기 있었는지

把酒问青天。
bǎ jiǔ wèn qīng tiān
술잔을 들어 파란 하늘에 물어본다.

不知天上宫阙 ,
Bùzhī tiānshàng gōngquè,
천상의 궁궐에서의

今夕是何年 ?
Jīnxī shì hé nián
오늘 밤은 어느 해인지 알 수 없네

我欲乘风归去 ,
Wǒ yù chéng fēng guī qù,
나는 바람을 타고 돌아가고 싶지만

又恐琼楼玉宇 ,
Yòu kǒng qióng lóu yùǔ,
한편으론 달나라 궁전이 두렵고

高处不胜寒。
Gāo chù búshèng hán,
높은 곳의 추위를 이겨내지 못할 것 같네

起舞弄清影 ,
Qǐwǔ nòng qīng yǐng,
일어나 춤추며 맑은 그림자와 놀아보니

何似在人间 !
Hé sì zài rénjiān.
어찌 인간 세상에 이런 곳이 있을까

转朱阁 ,
Zhuǎn zhū gé,
달이 붉은 누각을 돌아

低绮户 ,
Dī qǐ hù,
비단을 드리운 창에 내리니

照无眠。
Zhào wúmián.
그 달빛에 잠을 이루지 못하네

不应有恨 ,
Bù yīng yǒu hèn,
달은 나에게 원망이 없을 텐데

何事长向别时圆 ?
Héshì cháng xiàng bié shí yuán.
어찌하여 줄곧 이별할 때에는 저리도 둥근가

人有悲欢离合 ,
Rén yǒu bēihuānlíhé,
사람에게는 슬픔과 기쁨, 헤어짐과 만남이 있고

月有阴晴圆缺 ,
Yuè yǒu yīn qíng yuán quē,
달에게는 어두울 때와 밝을 때, 차오을 때와
기울때가 있듯이

此事古难全。
Cǐ shì gǔ nán quán.
세상사는 예로부터 완전하기 어려운 것이네

但愿人长久 ,
Dàn yuàn rén chángjiǔ,
다만 바라는 바는 우리들이 오래도록 건강하여

千里共婵娟。
Qiānlǐ gòng chánjuān.
멀이 있더라도 함께 아름다운 달을 바라보는
것이라네